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요

성경 사무엘하 16:1-14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기뻐하세요.

누워 있을 때 침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은혜의 찬양 283장)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2 나의 생명 드리니(찬송가 213장)

- 1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 2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 3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 4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 5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 읽기 사무엘하 16:1-14

- 1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이백 개와 건포도 백 송이와 여름 과일 백 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 2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 3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 4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 5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 6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 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 7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 8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 9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 10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 11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나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 12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 13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 14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본문 배경

사무엘하 16장에는 다윗을 만났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두 인물, 시바와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을 마주하지만, 말과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시바는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의 종이었습니 다. 그는 나귀에 빵 이백 덩이와 건포도 백 송이, 여름 과일 백 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찾아와 섬겼습니 다. 겉으로 보기에 시바는 위기에 처한 왕을 돕는 충성된 섬김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므비보셋의 상황을 물었고, 그의 말만을 듣고 므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그에게 줍니다. 이는 다윗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성급한 판단을 했음을 보여 줍니다. 겉으로 보기에 만 선하게 섬겼던 시바의 행동에 다윗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와 달리 시므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 가문의 사람인 시므이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라고 부르며, 사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다윗에게 있고, 하나님이 왕권을 다윗에게서 빼앗아 압살롬에게 넘기셨다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시므이를 당장 죽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분노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환난을 보시고 오늘의 저주 대신 복을 주실지도 모른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그가 여전히 말씀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기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사무엘하 16장은 다윗이 위기 속에서 연약함과 믿음을 동시에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다윗은 비록 사람의 말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저주와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관찰

1 시바는 다윗 앞에서 므비보셋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말했나요?(3절)

답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은 시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바는 떡 이백 개와 건포도 백 송이, 여름 과일 백 개와 포도주 한 가죽을 나귀에 싣고 왔습니 다. 이는 다윗을 돕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그의 마음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자신의 주인 므비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바의 말을 들은 다윗은 므비보셋이 가진 재산 전부를 그의 종 시바에게 넘깁니다. 다윗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시바의 말만 듣고 므비보셋을 반역자로 만든 것입니다.

2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10-12절)

답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설 사울의 친족 계라의 아들인 시므이가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의 용사 중 한 사람이었던 아비새는 시므이를 처단하겠다고 나섰습니 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를 막습니 다. 다윗은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으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니,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다윗은 주어진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말씀 적용

1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2 우리 가정이 현실의 문제 대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8-2 무슨일을 하든지

골로새서 3장 23절

swing

♩ = 120

작곡 이종윤

F Dm7 Gm7 C

무 스 일 을 하 든 지 — 마 음 을 다 하 여 — 주 께 하 듯 하 고 —

5 F A7 Dm7 G7 Gm7 C

사 람 에 게 하 듯 하 지 말 라 — 골 로 새 서 삼 장 — 이 십 삼 절 아 멘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